



Ki 가는 길, 역사가 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왼쪽)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토트넘 홉스퍼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전반 19분에 동점골을 뽑은 뒤 기뻐하고 있다. 기성용은 정규리그만 시즌 6득점을 기록,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썼다. 종전 기록은 박지성(은퇴)이 2006-2007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넣은 5골. /연합뉴스

기성용 토트넘전 6호골...박지성 한국인 EPL 최다골 기록 경신 英 언론 최고평점 7점 부여 팀은 패...김보경, 15개월만에 골맛

기성용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기성용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토트넘 홉스퍼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뒤지던 전반 19분 동점골을 뽑았다. 이로써 기성용은 정규리그만 시즌 6득점을 기록,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썼다. 종전에는 박지성(은퇴)이 2006-2007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5골을 기록한 바 있다. 기성용의 활약에도 스완지시티는 토트넘에 2-3으로 패배했다. 기성용은 어느 때처럼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으나 수시로 최전방까지 나타나

며 골을 노렸다. 선제골은 토트넘의 차지였다. 전반 7분 다니 로즈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나세르 샤텔리가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다. 실점 뒤 경기를 재개하기 직전 최전방 공격수 바페티비 고미스가 의식을 잃은 듯 쓰러져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갔다. 그러나 기성용이 동점골을 넣으며 동료의 기운을 북돋웠다. 한편, 챔피언십에서는 김보경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위건 애슬레틱이 노리치시티를 1-0으로 꺾었다. 지난 1일 블랙풀전에서 1년 3개월 만의 골맛을 본 김보경은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부활을 알렸다. /연합뉴스

기성용 시즌 6호 골 장면
5일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토트넘 홉스퍼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 경기 결과
토트넘 홉스퍼 3 : 2 스완지시티

기성용(06)
신장: 186cm
체중: 75kg
스투: 스완지시티

2014-2015 시즌 기성용 골 기록

- 1호골(14.08.1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 2호골(14.12.03) 크리스탈 팰리스전
- 3호골(14.12.21) 첼시전
- 4호골(15.02.08) 스완지시티전
- 5호골(15.02.2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英 언론 “만능Key’ 성용, 빅클럽 관심 1순위”

골 넣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각광받는 기성용(스완지시티)이 빅클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스완지시티의 차세대 주자라는 영국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영국 웨일스 지역지인 ‘사우스웨일스 이브닝 포스트’는 5일(이하 한국시간) “기성용이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면서 탁월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째를 터트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기성용이 스완지시티에서 빅클럽의 관심을 끌 다음 차레 선수가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성용의 득점이 더 칭찬을 받는 것은 그의 포지션 때문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볼배급과 상대 공격 차단이 주요 업무지만 기성용은 올해 들

어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팀의 득점 루트로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안컵 때문에 잠시 스완지시티를 떠나있던 기성용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득점력으로 무장하고 팀에 복귀했다. 아시안컵의 피로도 잊은 채 지난달 8일 나선 선덜랜드와의 정규리그 24라운드에서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시즌 4호골을 맞췄다. 득점 감각에 물이 오른 기성용은 지난달 22일 맨유와 정규리그 26라운드에서 시즌 5호골을 작성하더니 토트넘을 맞아 6호골을 넣으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특히 기성용은 최근 6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에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는 화끈한 득점 감각을 앞세워 빅클럽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특급 미드필더’로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두는 ‘공격축구’

K리그 내일 개막 9개월 대장정...클래식 사령탑 출사표

7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시즌에 나서는 사령탑들이 공격적인 축구, 감동을 주는 축구를 강조했다. 이들은 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5 개막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올 시즌 각오를 밝혔다. 서정원 수원 삼성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원정 때문에 불참했다.

- ◇남기일 광주FC 감독 = 작년에 K리그 클래식에 승격하겠다고 말했을 때 취재진이 의아하게 여겼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 대로 했다. 클래식 상대들은 우리보다 강할 것이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지닌 것들을 다 보여주도록 하겠다.
-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 =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선수 영입 때부터 이를 준비하면서 공격에 무게를 더했다. 주변 리그들이 강해지고 있지만 리그와 구단의 자존심을 걸고 나서겠다.
- ◇최용수 FC 서울 감독 = 우승 경쟁권에서 멀

- 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고 목표를 수정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 선수들은 독이 오른 상대. 매 경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황선홍 포항 스틸러스 감독 = 작년 후반기에 공격이 빈약해 걱정을 했는데 다양한 개성을 지닌 선수들을 영입해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북이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남은 K리그 클래식 타이틀을 가져가겠다.
- ◇조성환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 제주는 그간 ‘방울뱀 축구’, ‘오케스트라 축구’ 등으로 불렸



5일 오후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미디어 데이'에서 각팀 대표 선수와 감독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 작년에 수비 축구를 했는데 올해는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이다. 팬 여러분이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축구를 하겠다.

- ◇윤정환 울산 현대 감독 = 일본에 너무 오래 있었다. K리그에 돌아와 기쁘다. 현재 클래식 지도자들 중에는 나의 선수 시절 스승도 계신다. 올해 한 해, 다른 훌륭한 사령탑들과 함께 즐거운 축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노상래 전남 드래곤즈 감독 = 선수 때도 그

랬지만 첫째, 데뷔 시즌에는 좋은 기억이 많았다. 전남이 리그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내세운 목표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 ◇윤정호 부산 아이파크 감독 = 올해는 다른 말이 필요없이 많이 뛰고 슈팅을 많이 하고 이기고 싶다. 공수 전환이 빠른 부산의 축구를 기대하라.
- ◇김학범 성남 FC 감독 =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올 시즌에 우리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 힘들고 바쁜 일정이 되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믿는다.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김도훈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 인천은 원래 쉽게 지지 않고 끈끈한 팀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돌을 깨뜨리듯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리를 지어 호랑이를 잡는 늑대처럼 도전하겠다.
- ◇조진호 대전 시티즌 감독 = 승격 구단으로서 당당하게 도전할 것이다. 클래식이 살아나려면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챌린지 우승의 여세를 이어 팬들이 경기장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연합뉴스